

지나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3명		18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직분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 남한 땅에서 만 명의 다음세대 제사장들을 일으키십시오. -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길을 실행하여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십시오. - 북한 땅에 복음을 확산하십시오.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건축 과정을 인도하십시오.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매월 첫째 화요일 기도 실행 안내

- * 일시 : 6.7(화) : 몸의 요청 기도 참조

2. 자매 집회 : 2016.6.9(목) 오전10시 작전동집회장소

3.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 ① 일 시 : 5.31(화)~7.26(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 * 봉사자 온전케 하는 집회로 6.7(화)는 세미나가 없습니다.

4. 제 5회 영피플 집회

-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 ⑤ 신 청 : 7.3(주일)까지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 2016년 5월 복음에 이르는 교통 헌금과 심일조 현황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7지역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복음교통	10	880,000	29	3,220,000	30	2,960,000	14	800,000	25	2,330,000	8	590,000	4	270,000	120	11,030,000
심일조		31		25		47		46		30		28		10	217	51,031,000

♣ 지나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5.23.(월) ~ 2016.05.29(주일))

지역	1지역 (77명)				2지역 (127명)				3지역 (92명)				4지역 (120명)				5지역 (명98)				6지역 (48명)				7지역 (21명)		계													
그 룹	학 인	신	청 년	대 학	간 석	구 월	만 수	장 수	연 수	주 안	청 년	동 춘	청 학	송 도	가 작	석 현	가 정	연 회	청 학	청 학	검 람	당 감	삼 신	부 평	청 년	신 교		효 성	작 전	계 인	임 학	중 산	운 남							
안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23	10	17	9	8	10	13	14	14	20	11	21	23	11	20	18	16	21	17	11	9	12	10	18	11	14	10	13	12	26	31	23	18	13	10	12	13	9	12	583
기 도	5	7	6	3	2	3	1	6	4	7	1	1	10	8	7	11	8	0	9	6	2	3	8	3	7	6	2	2	6	14	12	7	7	6	7	6	4	5	211	
그 룹	12	7	9	12	6	4	2	6	8	9	5		14	13	10	12	14	12	8	8	2	4	9	8	8	10	8	2	8	15	13	14	11	6	7	7	8	6	317	
아침부흥	10	8	8	7	3																																	148		
어린이	11				20				13				22				15				8				3		92													
아빠노래									10				4												3		17													
중고등부	8				5				7				14				15				8				4		61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6. 05 16-23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시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정세를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주님의 회복의 진리를 확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

요7:37-39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성경은 두 역사(歷史), 곧 사람의 역사인 인류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의 기록이다. 인류역사는 밖의 겉질과 같고, 신성한 역사는 겉질 속의 알맹이와 같다. 소신언서들에서 인류역사는 요엘서 1장 4절에 언급된 네 종류의 때뚜기들에 의해 분명히 정의되고 상징된다. 인류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또한 매우 상세히 계시된다. 인생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한 비밀을 말해 주는 신성한 역사는 영원 과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부터 시작된다(미5:2하, 딤후 1:4, 열1:4-5, 9-11).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미5:2상)으로 계속되고,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계속되며(은1:17, 2:10), 삼일 하나님의 단체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결되신 영을 쏟아 부어주심(을2:28-32), 민족들이 갈망하는 분이시지(학2:7상), 의의 해이신(말4:2상)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심(을3:1-15),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시온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심(3:16-21, 미4:7)으로 계속된다. 결국 왕국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단계일 것이다.

우리가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계시와 신성한 진리와 참되고 합당한 신학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니케아 신조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신학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음의 다섯 가지 중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첫째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부활) 이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요 7:39하).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와 영이나 성령이라고도 말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 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의 말은 비록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지만’, 그 영께서 거기에 계시 날이 다가 오고 있다는 어떤 기대를 암시해준다.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때인 그분의 부활의 날이다(눅 24:26).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타난 기대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영이 되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핵심 요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 계시 되듯이, 부활안에서 마지막 아담(육체 안에 계신그리스도)은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이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복합적인 신성한 칭호인 ‘주 영’을 사용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의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 습니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는 예언의 분명한 성취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올리브기름과 네 종류의 향료와 그 효능의 복합체인)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에 관한 핵심 요점을 충분히 강조하는 신학은 오늘날 하나도 없다. 생명주시는 영은 단순히 없으시다. 이 영은 복합되신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셨지만, 생명주시는 영은 신성하시다. 그러므로 이 영은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이신 것이 틀림없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예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두 본성은 단지 연합된 것만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다.

네 번째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2절에 생명의 영이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이 있다. 이들은 다섯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생명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시며,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은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신다. 이 분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다섯 번째 핵심 중점은 일곱 영(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 비교 일곱 배의 햇빛—사30:26)이다(계1:4, 3:1, 4:5, 5:6). 생명주시는 영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했을 때에는 이 강한 영이 일곱 배로 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었다. 일곱 영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신 것은(계5:6) 일곱 영과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신 것을 나타낸다.

믿는 이들은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신학에 의해 저지되어, 하나님의 중심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중점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러한 중대한 요점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주시는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로 인해 현재의 주님의 회복에 관한 어떤 것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세대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복음전파를 위해 있다. 그리고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가? 오직 복음전파를 통해서만 산출된다.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가? 오

직 복음전파를 통해서만 출현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 즉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대를 복음 전파의 시대로 만드시는 것이다. 오늘날 평위의 모든 것이 복음전파를 위한 것이다. 공장, 인쇄기,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심지어 핵무기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은 복음 전파의 시대이다.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짐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이 교회 생활과 왕국과 심지어 새 예루살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완전한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 근래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곧 오늘날의 교회와 장자 올 시대의 왕국과 영원 안의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우리를 대항하는 반대까지 포함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처음 네 봉인에 대한 이상이다. 우리는 뒤에 있는 세 마리말의 기수들과 함께 있지 않다. 우리는 첫 번째 말에 탄기수와 함께 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 즉 이미 승리를 쟁취한 복음을 평화롭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이 없는 활을 갖고 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일 우리가 유럽에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출현한 진리들을 연구하는데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유럽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칠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모든 신성한 진리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 줄 것이다. 우리의 말함을 통해 몇몇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더 깊은 진리들(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세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지, 멸망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등)를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구절을 잊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하셔서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답후 4:2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교회의 증가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필요성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낡은 단계이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방문하는 것은 낡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공허한 모든 말을 버리고 일주일 동안 한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러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소중히 품어야 한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간의 새 사람들을 더 얻으려고 또다시 나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침례 준 셋 중에서 하나도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교회생활을 함께 할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양망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길을 취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일 년에 적어도 한 명을 교회생활 안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중에서 나갈 힘이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가는 사람들을 즐거이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사모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므로, 비록 우리는 갈수 없더라도 사람들의 집으로 방문하러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까이 지원하여 나가는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도록 그분을 양망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 한, 우리는 그분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나가는 사람 중에는 그들의 바로 앞에서 문을 쾅하고 닫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위해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증가를 얻어야 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대한 주님의 축복은 놀라운 결과로 증명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성경적인 길을 취함

1)복음을 전파함으로 낡음. 2) 가정 집회에 의해 양육함. 3) 소그룹 집회에 의해 가르침. 4) 교회의 집회들에 의해 교회를 건축함. 이러한 네 중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성경적인 길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회복하실 때이다. 나는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의 이 두 부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리라는 넘치는 확신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전통적인 옛 길을 버리고 성경적인 새 길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새 길을 빠른 방식으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새 길을 너무 빨리 취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잃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점진적인 방식으로 확신을 갖고 주의 깊게 가야하고, 반드시 명확한 목적을 가진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

는 주님께서 옛 길을 끝내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이 두 중요한 부분, 곧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11절부터 16절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주님은 하나의 회중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 말씀의 이 부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우리의 연장한 동역자인 이 형제님은 오십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과, 우리가 바로 말씀의 이 두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낙오될까 염려스럽다. 우리가 새 길의 이상을 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성도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도록 이끈다면 우리는 그다지 큰 손실을 겪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일에서나 실행을 바꾸는 데에는 항상 약간의 손실이 있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이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는 항상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으로 그 나무의 생명 즙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15:5). 만약 가지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 가지는 심중팔구 벌써 잘렸을 것이다(15:2상, 6).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끊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기만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매년 그리스도를 누려왔는가?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맺은 열매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성경에 따른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실행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분의 회복을 마치실 길을 가지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다. 주님은 육십 년 전에 그분의 움직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은사 있는 사람들, 곧 인도하는 이들과 동역자들은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그들을 방문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연장한 동역자들이 새 길을 취한다면 더욱더 유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영의 흐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오될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신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한다(엡 5:16). 연장한 동역자들은 더 유용하지만, 주님의 회복의 오늘날의 전진과 함께해야 한다.

〈주님의 현재의 회복을 실행하는 길 : 제2장에서 발췌〉